

# 문화재연구 국제교류현황과 과제 : 중국·미국

박 양 진\*

## 목 차

I. 중국

II. 미국

### I. 중 국<sup>1)</sup>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문화재연구 국제교류는 두 나라 사이의 정치외교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철저히 규정되어 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1949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1950~1953년의 한국전쟁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여 참전하면서 두 나라는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는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9년 이후 중국은 개방개혁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가 점차 붕괴되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정치외교적 관계가 개선되자 문화재연구 국제교류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 연구자들은 197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재연구 성과를 오로지 문헌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으며, 그것도 일부 제한된 숫자의 연구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문화재연구 학술교류의 역사는 가장 길게 잡아도 20년 가량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며, 그나마 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재연구 학술교류를 먼저 간략하게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1) 이 글에서 중국 및 미국 지역과의 교류와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인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거하는 것은 필자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되며, 이 글에서 거론되는 연구자와 기관의 선정은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혈맹 관계에 있던 중국과 북한은 학술문화적 교류의 일환으로 공동의 고고학 발굴조사단을 구성하고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하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주요 유적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두 나라 학자들간에 유적발굴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고고학자료의 해석, 고고학 유적과 문화의 족속 추정 등의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따라서 공동의 발굴조사 보고서는 출간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측은 1966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보고서를 먼저 출간하였는데(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이 보고서에 포함된 요동반도의 崗上, 樓上 등의 무덤은 나중에 고조선의 지배층의 순장 무덤으로 해석되면서 고조선 사회의 성격 규정에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로 이용되었다. 한편 중국 측의 보고서는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文化大革命(1966~1976년)의 혼란과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학문적 제약으로 인하여 30여 년이 지난 1996년에서야 비로소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이렇게 북한과 중국은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유적을 함께 발굴하였지만 고고학자료의 해석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굴보고서를 제각기 출간하게 되었고, 중국 당국은 이 유일한 외국학자와의 연합조사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초까지 고고학 조사에 외국인이 참가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폐쇄정책을 유지하였다.

1976년 毛澤東이 사망한 후 집권한 鄧小平이 1979년부터 개방개혁정책을 채택하여 문호를 외국에게 개방하고 이에 맞추어 우리 나라 정부도 이른바 북방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재연구 학술교류가 점차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의 학술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과 학회, 문화재관련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와 논문발표회에 중국의 학자가 빈번하게 초청되어 참가하고 있고,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92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에는 중국의 권위있는 관련 전문학자들이 참가하여 중국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를 직접 소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을 방문한 대표적인 중국 고고학자로는 嚴文明, 李伯謙, 馬世長, 趙化成, 王幼平(이상 北京大學), 王仲殊, 任式楠, 烏恩, 安家瑤, 王魏(이상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林灑, 魏存成(이상 吉林大學), 郭大順(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徐秉琨(遼寧省博物館) 方起東, 辛占山(이상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靳楓毅(北京市文物研究所), 王炳華(新疆文物考古研究所), 尙曉波(朝陽市博物館), 周裕興(南京市博物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술논문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문화재 연구자들은 중국학계가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안 소원했던 두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학술회의에 우리 나라의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2년에 內蒙古의 呼和浩特市에서 거행된 "中國古代北方民族考古文化" 국제학



술회의에는 세계 20여 국가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조유전, 최몽룡, 박양진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1990년 遼寧省 大連과 1992년 河北省 石家莊 등지에서 개최된 “環渤海國際學術討論會”에도 우리 나라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가한 바 있다. 이후 중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학술회의에는 우리 나라의 고고학, 미술사, 중국학 등의 연구자들이 초청되어 논문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의 학술교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1998년 8월 북경대학에서 이 대학 개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중국과 일본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김정기, 신경철 등)와 북한의 고고학자들(김종혁 등)도 참여하여 남북한 학술교류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두 나라의 학술 기관 사이의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사이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과 중국의 여러 박물관 사이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과 중국 河南省 洛陽博物館 사이의 밀접한 교류와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로서 〈중국낙양문물명품전〉이 1998년말부터 1999년초까지 부여, 서울, 경주, 전주 등에서 순회 개최되어 일반인들이 중국의 문화재를 직접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중국의 국보급 문물의 국내 전시가 더욱 빈번해지고, 우리 문화재도 중국에서 전시회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두 나라의 문화재연구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상대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1996년에는 北京大學 考古系의 李伯謙교수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와의 정기적 학술 교류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 전국을 답사한 바가 있고, 이에 답방의 형식으로 서울대 교수들이 북경 및 중국 동북지방을 답사하였다. 또한 吉林大學과 충남대학교가 맺은 학술 교류협정의 결과 吉林大學 魏存成교수가 충남대학교를 장기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과 우리 나라 연구 기관 사이의 학술 교류와 더불어 최근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재연구 성과를 각각 자기 나라의 연구자에게 소개하는 일이다. 중국의 출판물을 더 이상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학문적 성과는 즉각 우리 나라의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수요가 많은 도서들은 다량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연구 성과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무장교수가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용민(1996)은 魏存成의 〈高句麗考古〉를 번역, 출간하여 고구려고고학의 중국측 연구 성과를 우리 나라에 소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중국 연구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서, 특히 동북지방의 연구자들은 우리말로 된 문화재연구 저서와 논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1977)가 발간한 〈조선고고학개요〉는



1983년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학자들에게 우리 나라 고고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설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의 중요한 고고학 논문들을 매년 몇편씩 번역하여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라는 내부용 간행물에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특히 최근 남한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별다른 시간적 격차 없이 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두 나라의 학자들이 상대방의 연구 성과를 여과없이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학술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연구자들에게 상대국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고고학 자료를 분석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과 중국고고학 자료를 연구한 한국 학자들의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자료의 경우 우리 나라의 선사고고학 및 역사고고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고고학의 개설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도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동북지방을 벗어나 중국 중원 및 다른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와의 관련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중국고고학 자체를 연구하는 인력의 숫자는 아직 미미한 정도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형구(1987)가 臺灣大學 歷史研究所에 박사논문으로 제출한 〈渤海沿岸古代文化之研究〉와 박양진(1995)이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A Study of the Bronze Age Culture in the Northern Zone of China〉, 그리고 四川省의 三星堆 청동기문화를 논의한 부분이 포함된 김병준(1997)의 〈中國古代 地域文化와 郡縣支配〉 등의 저서가 있으며 그밖에 중국의 선사시대 고고학문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성규(1989)의 논문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北京大學, 吉林大學 등의 대학원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숫자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그와 함께 연구의 수준도 한층 높아지리라고 기대된다. 중국 학자들에 의한 우리 나라 고고학자료의 검토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데, 王魏(1997a, 1997b)의 경우처럼 일차적으로 중국적 시각이나 일본연구자들의 자료 분석과 시각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고고학자료를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 나라 자료 자체를 독립적으로 취급하여 우선 분석한 후 동아시아적 시간에서 고찰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유적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발굴은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북한과의 중국 동북지방 유적발굴에서 얻었던 부정적 경험은 아직도 중국 고고학자들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청동기시대(혹은 고조선시대) 이후부터 발해까지 이르는 역사시대 유적의 발굴과 그 해석에 대하여 중국 당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현재 중



국 동북지방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조선족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북한의 탈북자문제까지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우리 나라 학자들의 고고학유적 공동 발굴 조사는 아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1991년 외국학자들의 발굴을 허용한 이래 외국과의 공동 발굴조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의 민감한 민족적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부터 점진적으로 시도한다면 한중간의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과의 문화재연구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연구자들이 중국 문화재와 고고학자료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문화의 오랜 전통과 함께 지역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중국 지역 전체의 고고학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 동북지방의 자료만을 우리 나라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고찰하려 한다면, 이 지역 문화의 종합적 맥락과 전체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고고학에 대해서도 민족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중국 연구자들의 관심과 이해 또한 절실하다. 우리 나라의 문화재를 중국 중심적 사고 체계에서 분석하던 이제까지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재와 고고학자료의 독자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연구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우리 나라의 문화재연구 국제교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한 양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벽화고분의 경우는 적절한 보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파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굴과 인위적인 훼손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자본주의의 물결이 중국을 압도하면서 문화재의 도굴과 파괴가 중국 동북지방에서만 극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의 수집가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재에 보이는 깊은 관심이 오히려 이들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고분이 훼손된 사건에 한국인의 관련성이 의심되고 있고, 중국의 공립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던 유물의 일부가 한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문의 보도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가 중국 동북지방의 고구려 벽화고분을 비롯한 문화재들의 보존 대책과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0년 봄 중국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문화재를 단순히 어느 특정 민족의 소유물



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라고 인식할 때만 우리 나라와 중국 연구자들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본다.

## II. 미 국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문화재연구 국제교류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전공 영역인 고고학을 중심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와 연구기관의 교류, 그리고 학문적 교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유럽 지역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과의 문화재연구의 교류 현황을 살핀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연구인력의 교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수학, 연구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 인력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문화재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은 주지하다시피 1961년 서울대학교에 고고인류학과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학과의 설치 과정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전임교수로 부임한 김원룡교수는 미국의 뉴욕대에서 수학하여 1959년 박사학위를 이미 수여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 유학하여 대학원 교육을 받게 되었다.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구미 지역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을 열거하면 임효재(텍사스주립대; 현재 서울대), 안휘준(하버드대; 현 서울대), 김병모(영국 옥스퍼드대; 현 한양대), 정영화(프랑스 보르도대; 현 영남대), 손병헌(하버드대; 현 성균관대), 지건길(프랑스 렌느대; 현 프랑스주재 문화원), 최몽룡(하버드대; 현 서울대), 최무장(프랑스 파리대; 현 건국대)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구미 지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로는 배기동(캘리포니아주립대; 현 한양대), 최정필(피츠버그대; 현 세종대), 권학수(일리노이주립대; 현 충북대), 노혁진(오레곤주립대; 현 한림대), 이선복(아리조나주립대; 현 서울대), 안승모(영국 런던대; 현 원광대), 한창균(프랑스 파리대; 현 한남대), 강봉원(오레곤주립대; 현 경희대), 안덕임(영국 런던대; 현 한서대), 박양진(하버드대; 현 충남대), 김승옥(미시간대; 현 전북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미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서 수학한 많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학위 논문에서 한국의 문화재 혹은 고고학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면서, 한국의 문화재를 세계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논문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서구학계의 관심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들이 귀국하여 국내의 교육 및 연구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와 구미 지역과의



인적 교류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 학자 가운데 대다수가 우리 문화재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영어로 계속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연구가 심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김원룡교수는 많은 숫자의 영어 논문을 지속적으로 미국의 학술잡지 등의 매체에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3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고고학연보(Archaeology in Korea)를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출간하면서 한해의 고고학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요약하여 서구 학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 문화재 연구의 국제화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학자들에 의한 우리 문화재의 직접적 연구도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샘플(L.L. Sample)은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67년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고(Sample 1967), 이후 한국의 신석기시대에 대한 논문을 〈Arctic Anthropology〉, 〈Asian Perspectives〉 등의 학술 잡지에 발표하였다. 현재 덴버대학의 교수인 넬슨(Sarah M. Nelson)은 1973년 한강 유역의 신석기시대 생업경제와 취락에 대한 학위 논문을 발표하여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Nelson 1973),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고고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는 자신의 한국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여 〈The Archaeology of Korea〉라는 영문 개설서를 출간하였다(Nelson 1993). 일본고고학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고고학 자료에 접근한 반스(Gina L. Barnes) 역시 1993년 〈China Korea and Japan : The Rise of Civilization in East Asia〉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Barnes 1993). 이들 단행본은 여러 가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까지 축적된 한국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서구 학계에 소개하는 나뉠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학자의 뒤를 이어서 최근에도 한국고고학과 미술사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국 대학원생들이 꾸준히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자료조사 및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인적 교류와 더불어 기관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국립박물관의 해외 문화재 전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불어넣고 민족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박물관은 1957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미국의 8개 도시를 순회하는 〈국보급문화재 해외전시〉를 단행하였다. 이 전시는 1961년 유럽 5개국을 순방하는 전시회로 이어져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재인식하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1979년 국립박물관은 〈한국 미술 5000년전〉이라는 또 다른 전시를 기획하여 미국을 순회 전시하였고 이는 1983년의 유럽 순회전시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립박물관의 기획 전시는 1980년대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유명 박물관의 한국관계 전시실이 우리 정부의 지원 아래 확대 개편되고 있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해외 학자 및 일반인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우리 문화재의 해외 전시는 또한 국립박물관과 미국 및 유럽 관련 기관 사이의 전시 및 학예연구 인력의 인적 교류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전시를 계기로 문화재의 보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스미소니언박물관 등과 같은 박물관 및 연구소와의 교류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여러 학회에서 한국의 문화재연구와 관련된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고고학회(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와 미국인류학회(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미국동양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등의 연례 총회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끊이지 않고 발표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결성된 동아시아고고학회(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에도 우리 나라 학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학회의 1996년 하와이 총회에는 임효재, 이청규, 최성락, 박양진 등이 한국고고학을 주제로 한 독립된 패널을 최초로 구성하여 각자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학회에서의 우리 나라 연구자들의 활동은 학자들의 인적 교류라는 일차적인 성과와 더불어 우리 학문의 국제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적 교류 및 기관, 학회 등의 교류와 더불어 학문 연구성과의 교류를 잠시 살펴보면, 크게 미국 연구성과의 한국 소개와 한국 연구성과의 미국 소개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고고학의 연구성과를 우리 나라에 소개하는 작업은 1980년대까지 최몽룡교수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미국 신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고고학의 연구 이론과 방법론을 실제로 한국고고학 자료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그의 “지석묘사회와 족장사회론”은 고고학계는 물론 고대사학계와 인류학계 등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족장사회 및 국가사회의 출현 시기에 대한 논쟁과 외국 이론의 한국사 적용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한국 고대사회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에는 미국고고학자들의 여러 저서가 국내에도 번역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고고학 연구방법론을 우리 나라 고고학 자료에 적용하여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들도 많은 숫자가 발표되고 있다. 한국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미국 및 서구 학계에 소개하는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자들이 가진 명백한 언어의 한계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고고학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20세기 말의 한국고고학의 다양한 연구성과가 서구 학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것은 먼저 국내 학계의 연구가



더욱 성숙하여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과 연구 성과를 다시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문화재 연구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과의 문화재연구 국제교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의 문화재연구 성과나 고고학 연구 방법론의 소개에 대하여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 미국의 연구방법론을 한국의 자료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존 연구자들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부정적 입장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연구에서 우리 나라의 독특한 학문적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는 폐쇄적이고 자민족중심주의적인 학문으로 빠지게 된다. 또한 문화재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독특한 학문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일본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학계의 다양한 학문 발전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편적, 객관적, 국제적 성격의 학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문의 국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 학계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연구 성과를 미국을 비롯한 서구 학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영어 개설서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적고, 그 대부분이 외국의 전공학자들에 의해 쓰여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문화재연구 전공자에 의한 영어 저서의 출간과 논문의 발표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문적 교류와 더불어 연구자의 인적 교류와 연구 기관 사이의 정기적, 규칙적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된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화재연구의 편차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병준, 1997. 〈中國古代 地域文化와 郡縣支配〉. 一潮閣.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이성규, 1989. 中國文明의 起源과 形成. 〈講座 中國史 I - 古代文明과 帝國의 成立 -〉, 25-88. 지식산업사.  
 李亨求, 1987. 〈渤海沿岸古代文化之研究〉. 國立臺灣大學 歷史研究所 博士論文.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文化財 三十二號 1999

王巍, 1997a. 中國古代鐵器及冶鐵術對朝鮮半島的傳播. 〈考古學報〉 1997年 第3期, 285—340.

王巍, 1997b. 從出土馬具看三至六世紀東亞諸國的交流. 〈考古〉 1997年 第12期, 66—8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雙砣子與崗上 — 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Barnes, Gina L. 1993 *China Korea and Japan: The Rise of Civilization in East Asia*. Thames and Hudson.

Nelson, Sarah M. 1973 *Chulmun Period Villages on the Han River in Korea, Subsistence and Settle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Nelson, Sarah M. 1993 *The Archaeology of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k, Yangjin 1995 *A Study of the Bronze Age Culture in the Northern Zone of China*.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Sample, L.L. *Culture, History, and Chronology in South Korea's Neolithic*.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